

“전통음악·시서화 품은 국악원 국민 쉼터로”

신임 명현 국립남도국악원장

씻김굿 박병천 소리에 감동...공대생서 국악인으로

“전통문화 전승, 예술가들 성장 발판 마련에 온 힘”



무형문화재 김대례의 시나위, 판소리를 들으며 국악의 세계에 입문한 명현 학예연구관이 지난 10일 국립남도국악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992년 전남대 공대에 재학중이던 명 신임원장은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노래패 활동을 하던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래를 불렀고, 민중가수 출신인 범능스님을 특히 좋아했다. 그러다 우연히 진도씻김굿 보유자인 고(故) 박병천 선생의 소리를 듣고 '국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박병천 선생님의 소리는 '인생의 풍상이 성성한 그물에 걸려있는 바람소리' 같았다"고 말했다. 김대례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국악의 매력에 빠진 그는 목표에 근거를 둔 극단 깃들이에 몸담으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소리와 가락, 춤을 경험하게 됐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다.

"사실 대학을 자퇴하고 대학 입시에 다시 도전해 국악학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장성한 자식이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듯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이론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대학원 준비하면서 당시 전대 국악과 교수였던 김우진 교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졸업 후 2002년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 학예연구사를 시작으로 국악 진

흥에 몸을 던졌다.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 국악진흥과, 기획관리과를 거쳐 2015년 전통 음악의 세계로 이끈 정신적인 고향인 진도군 여귀산 자락에 자리한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장으로 부임했다.

내부에서 임명하는 자율직위였던 남도국악원장 직위는 지난 2015년 민간인 전문가로 응모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변경, 올해 내부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일반개방형 직위로 바뀌었고, 그는 공모에 응시해 3년 임기 원장으로 임명받았다.

"진도는 늘 그리운 바다였습니다. 그곳은 백숙을 삶던 사이 구성지가 뿔아내던 식당 아주머니의 육자배기가락, 밤새도록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루만지던 깃김굿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또한 태생이 촌놈인지라 남도 땅은 늘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북놀이, 강강술래, 농악, 깃김굿, 들노래, 상여소리 등 진도는 삶 속에 예술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공연을 마치면 출연자의 손을 꼭 잡아주던 관람객이 있는 곳이지요."

명 원장은 '지역에 기여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국민의 문화쉼터'로 남도국악원의 비전을 정하고 지역의 전통문화가 건강하게 전승되며, 지역의 예술가들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이다.

"천혜의 자연 환경, 전통음악과 시서화(詩書畵), 넉넉하고 풍요로운 남도의 문화자원을 품은 남도국악원은 국민들의 넉넉한 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국악원이 전남지역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2004년 개원한 남도국악원은 총 11만 3251㎡(3만4200평) 규모로 공연장, 체험장,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요국악공감, 찾아가는 국악교실, 예술교육 특성화 지원사업 등을 운영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극장 28일 '국도극장' 상영·감독과 대화



영화 '국도극장' 상영 후 전지희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열린다. 광주극장은 28일 오후 3시 10분 '국도극장:감독판'을 상영하고 전 감독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에는 배우 이동휘·이한위·신신애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사법 시험에 매달리던 기태가 사법 고시가 폐지되고 고향 벌교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빈손으로 돌아온 고향엔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그가 반가워할 만한 사람도 없다.

할 일 없는 기태는 어쩔 수 없이 낡은 재개봉 영화관 '국도극장'에서 일을 시작한다. 극장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기태는 간판장이자 극장 관리인 오씨와 동창 영은을 만난다. 영화에는 '흐르는 강물처럼', '침밀밭', '박하사랑', '별날은 간다' 등 손으로 그린 간판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작품은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프로젝트마켓'에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상, TV5MONDE상, JJC상, 푸르모디티상 등을 수상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온라인으로 만나요

국립광주박물관, 드로잉 뮤지컬 '고흐즈' 27일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어린이들을 위한 드로잉 뮤지컬이 온라인 생중계된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토요일 어린이를 위한 공연 '드로잉 뮤지컬 '고흐즈''를 27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에 지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

해 공개된다. 드로잉 뮤지컬은 무대 위에서 그림을 직접 그리는 창작 장르로 드로잉 퍼포먼스와 코미디 뮤지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번 이번 공연 '고흐즈'는 기존 책에는 나오지 않는 고흐의 비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관심을 끈다. 아울러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의 숨은 이야기까지 재미난 뮤지컬로 만나 볼 수 있다.

광주박물관은 온라인 공연 외에도 누리집을 통해 소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연관람 서비스도 사전예약제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예약제, 관람객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의 조치의 무화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이 27일 유튜브 생중계 하는 드로잉 뮤지컬 '고흐즈'.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화상미술작품 감상 프로그램.

광주시립미술관 30일부터 '화상 미술작품 감상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술관 문화백신 프로젝트 일환으로 '화상 미술작품 감상 프로그램'을 30일부터 운영한다.

미술관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미술관을 방문하지 않고 학교에서 전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화상 미술작품 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화상플랫폼을 활용해 비 대면으로 진행되며, 전

시작품 설명은 광주시립미술관 도슨트 박한빛씨가 맡는다. 프로그램 운영은 미술관과 '화상 미술작품 감상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측의 사전협의 후 진행되며, 미술관은 참여하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시 작품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사전예약관람제를 도입하여 제한적으로 미술관을 개관했지만 아직 코로나19사태 이전처럼

완전 개관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온라인 화상 감상 프로그램으로 전시관람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술관은 남평초, 포두초 등 지리적·환경적 여건 등으로 미술관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화상 작품감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현재 미술관에서는 '놀이가 미술이 될 때', '신소장품 2019', '2018-2019 북경창작센터 성과발표전-북경일주'가 열리고 있다. 문의 062-613-712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020 광주학 콜로키움' 29일부터 다섯 차례

광주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지역학 토대를 이루자는 취지의 '2020광주학 콜로키움'이 올해 다섯 차례 진행된다.

콜로키움은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4시(8월 제외)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작은도서관에서 열린다. 천덕염 전남대 석좌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며 지역 관련 연구자들이 발표에 나선다.

먼저 29일은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근대 광주의 노블레스'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7월 27일은 김허정 전남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가 '근대 추상회화의 태동과 광주 서양화단'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9월 28일에는 박경섭 전남대 5·18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도시화 시대 광주천의 사람들'을, 10월 26일에는 주광 한국방송 DJ협회 기획이사가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을 조명하고, 마지막 11월 30일에는 천덕염 교수와 김현숙 광주 근·현대 건축가 연구자가 '근대광주의 건축문화와 건축가들'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들은 이메일(damian0506@hanmail.net)에 '사전신청'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담미술관,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진행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26일 오후 2시~4시 '문화가 있는 날-함께하는 블루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다. 사전예약을 통해 미술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 및 비하인드 스토리를 진행, 심도 있는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및 친구들에게 평소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타일에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코로나에 지친 일상의 힐링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사전 스케치를 통해 소재를 전하고 타일에 자신의 스토리를 제작해 본다. 완성된 작품은 실생활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사는 대담미술관 전시실, 체험장 등에서 열리며 향교리 마을투어도 진행한다. 사전예약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담미술관은 직장인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밤 9시까지 전시실을 개관하고 있다. 문의 061-381-00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